

‘직선제’로 선거 투명성 제고한다

신협중앙회장, 885개 신협 이사장 직접선거 통해 선출... 선거사무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다. 신협중앙회는 2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199명을 포함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므로, 신협중앙회장 직선제는 2022년 2월 차기 선거부터 실제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명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

거에서 885개 신협 대표에 의한 민주적 직접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회원 신협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장 직선제 관련 주요 경과를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여 ▲2019년 관련 사항에

대한 신협법 개정과 ▲정관 개정, 이번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자산 98조 원, 조합원수 628만 명, 거래자 1,230만 명, 영업점 수 1,657개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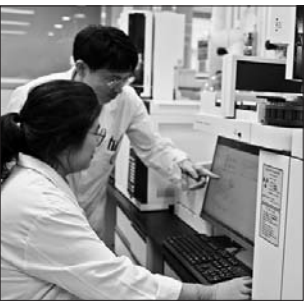
aT, 잔류농약 분석기술 국제적 수준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최근 발표된 '2019 국제공인분석능력 숙련도평가(FAPAS)' 결과를 통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능력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영국 식품환경연구구(FCR)가 운영하는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숙련도평가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가하여 분석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중금속은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잔류농약은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평가가 진행됐으며, 전 세계 약 7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하였다.

aT는 올해 처음으로 알드린 등 잔류농약 8개 성분과 납·카드뮴 등 총 10개 성분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에 참가했으며, 10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aT는 중금속인 납에 대한 'Z-score'가 '0.0'을 기록하며 참여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Z-score'는 실제 평가결과와 제출값의 차이를 전체 참여기관의 표준



평가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0.0에 가까울수록 우수함을 나타낸다.

이번 평가결과는 aT의 비축농산물 안전관리는 물론 비축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는 2016년 11월부터 자체 품질안전검사가 가능한 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비축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기우 aT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산물 수출 제2의 도약 위해 최선을”

전북농협, 수출추진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7일 부귀농협(조합장 정종욱) 김치기공공장 등에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하반기 수출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농협 상반기 수출현황 분석 및 하반기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특히, NH농협무역 호남사업소 김진호 소장을 초청하여 '2019년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전북농협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산물을 740만불을 수출했으며, 하반기에는 배를 필두로 파프리카, 포도, 메론, 밤 등을 베트남,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농산물 수출목표 3300만불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올 상반기 양과



과인 생산 타개를 위해 지난해보다 8배 이상 확대된 5,345톤을 수출해주시는 조합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일본의 무역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입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농산물의 통관 및 위생·검역강화에 대비 수출 농가 안전성 교육, 주요 바이어 동향 수시 파악 등 일본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협의회 정종욱(부귀농협 조합장)회장은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농민들의 피땀 어린 농산물을 제값에 팔수 있도록 수출 확대에 부단히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호랑나비와 함께 행복감 UP

농촌진흥청, 초등학생 대상 심리치유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는 호랑나비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알이 애벌레-번데기-어린벌레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돌보는 동안 나타나는 심리 변화를 조사했다.

심리 치유 효과를 밝히기 위한 현장 실증은 4주 동안 전주 민성초등학교 3학년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체험반과 비체험반으로 나눠 진행했다.

체험반 학생들은 △ '호랑나비 알 아끼기(나비에 대해 알아가며 친해지기)' △ '체험하며 돌보기(애벌레와 사람의 성장 경험 공유, 정서적 지지로 생명에 대한 경외감, 책임감 등을 형성)' △ '날려주기(호랑나비와 친구관계를 형성해 사회성을 높여주는)' 활동에 참여했다.

사전·사후 심리 진단 분석 결과, 체험반은 삶의 만족도가 7.17점에서 7.60점(10점 척도)으로, 주관적 행복감은 3.87에서 3.90점(5점 척도)으로 높여졌다.

/김윤상 기자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침 속의 알파 아밀라아제 함량을 측정했다. 체험반의 알파 아밀라아제 함량은 15.98점으로, 체험 전(17.48)보다 낮아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 프로그램 책자와 호랑나비 돌보기 키트를 제작해 올해 안으로 전국 학교와 곤충교육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해선 곤충산업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체험 활동 진행 농가에서 활용하기도 쉬워 곤충을 활용한 어린이 심리 치유 적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X-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초 장애인 취업패키지 도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만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LX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27일, LX 본사에서 최창학 사장, 조종란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연구,

교육,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LX는 국내 최초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인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를 통해 실질적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훈련반GO, 자격패GO, 일자리 찾GO'를 모토로 추진하는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대상자에게 자격증취득, 직무교육, 현장학습 등 맞춤형훈련을 시행하고 수료자를 정식 채용하는 LX만의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이다. /김윤상 기자

LX, 'The 행복한 사회가치위원회' 출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가치실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를 출범시켰다.

LX는 2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1회 The 행복한 사회가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최고자문기구의 발족을 알렸다.

최창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The 행복한 사회가치위원회'는 사회가치, 지역발전, 일자리, 상생협력 분

야 전문가와 경영학, 행정학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창출, 안전·환경, 지역상생, 윤리·인권 등 공사의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또한 연내 추진예정인 LX 사회가치 실현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점검 및 발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창학 사장은 "사회가치위원회의 자문내용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이 27일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전북우정청, 새내기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진행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정창림)이 지난 27일 우정청에서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행정9급)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새롭게 우정가족으로 출발하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축하 의미를 담은 꽃다발과 도서를 전달하며, 공직생활을 응원, 격려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소감 및 포부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나 주무관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전북우체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창림 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들이 우체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새내기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